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5. 01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냉동 참치 어가 하락에 위기감3
2. 일본 수산청,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강화4

- 일본 가다랑어·참치 협동조합의 카가와 조합장은 냉동 참치 가격 하락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표명
 - 가가와 조합장은 2024년 남방참다랑어 40%, 참다랑어 20%, 눈다랑어 30% 가격 하락에 대해 우려하며, 일본 시장에 공급 집중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
 - 어업 비용 증가로 인해, 참치 어선의 하루 운영비가 120만 엔에 달하며 대부분의 어선이 적자를 보고 있음. 특히 연료비, 인건비, 사료비 등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
 - 냉장고 용량 부족으로 여러 선박이 최대 7개월 동안 대기해야 했고, 냉동품의 공간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. 이로 인해 일본 및 타이완, 한국의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. 시장 출하와 저장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
 - 일본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,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남방참다랑어와 눈다랑어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
 - 참치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, 일본 외 시장 개척을 통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¹⁾

1)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9054> ('25년 01월 31일 검색)

- 모리 장관은 2025년의 주제로 자원 조사·평가, 환경 보전, 양식·어법 전환 등을 제시하며, 정책 개선과 지역별 수산업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
- 2024년도 추가경정 및 2025년도 본예산으로 3,183억 엔을 확보하였으며, 환경 변화 대응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음
-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을 어업 종사자들이 직접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, 지역 차원의 협업화·조직화 논의를 촉진하고 수협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음
- 어업 재해 보상법 개정을 검토하며, 어법의 복합화 및 양식업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음. 또한,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음
- 노토 반도 지진 복구를 위한 환경·어장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,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할 뜻을 밝혔음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²⁾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8772> ('25년 01월 31일 검색)